

개각·총선 정국 맞물려 한전 사장 공백 장기화 조짐

26일 이사회 안건 미정 이유 미뤄 여권 안팎 후임 하마평도 안나와 10월 넘겨 연말까지 공석 가능성 총선 교통정리 후 윤곽 드러날 듯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최대 기업인 한국전력의 사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총선이 1년 도 남지 않은 데다, 정치권 안팎에서 후임 사장 후보군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한전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건 미정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

기관장의 중도 사퇴 시 1개월 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전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꾸려야 한다. 정 전 사장의 사직서는 지난 19일 수리됐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와 여권 안팎에선 한전 임추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후임 한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말께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여름철을 넘겨 오는 10월이나 이후 연말까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전 사장 사퇴 이후 관가와 여권 안팎에선 후임 사장 후보군 하마평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공백이 길어져서도 안 되지만, 좋은 인물이 보이지 않아 쉽지 않은 상

황"이라고 말했다.

배경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스케줄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한전의 자구책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표명하는 등 '후임 시나리오'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여권발 정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공공기관 중 당치가 크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해 정치적 무게감도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데 이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두고 현 여권이 불편해했던 것도 한전 사장직의 이 같은 정무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전 사장 후보군은 내년 총선 후보군과도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

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총선 전으로 접쳐지는 개각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총선 출마자, 공직인 공공기관장,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장관직 등 후보군 사이에서 여권 내 '교통정리'와 맞물려 후임 한전 사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에너지 공기기업인 한전의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당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이행과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불거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출연금 재조정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전 사장의 경우 6개월 이상 비워둘 순 없어서 유력한 총선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인 기타 공공기관장직에 대해서는 서둘러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총선 전 교통정리 시 정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한전KDN-레드햇 클라우드 기술 강화 업무협약



한전KDN과 레드햇이 지난 25일 서울시 삼성동 한국레드햇 회의실에서 클라우드 기반 기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신재문 한전KDN 미래사업개발본부장과 김경상 한국레드햇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은 에너지ICT 전문 공기기업인 한전KDN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실천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글로벌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공분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전KDN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전문기업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으로 한층 강화된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클라우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한전KDN과 레드햇은 에너지ICT 전문기술과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환경·보안 등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분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및 전력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수준 향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K-펫푸드 페어' 최초 개최...아세안 펫푸드 시장 공략 나섰다

베트남서 5270만 달러 수출상담 하반기 인도·말레이시아 마케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를 최초 개최해 총 527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아세안 펫푸드 시장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성장 중이다. aT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클 프로젝트 유망품목'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선정하고 유기농·기능성 프리미엄 상품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에 주력 중이며, 올해 최초로 'K-펫푸드 페어' 행사를 기획·추진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국내 우수 수출업체 31개사와 베트남 등 아세안 각지의 수입 바이어와 벤더사, 대형 펫샵 체인 등 106개사가 열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총 527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상담회장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 체결도 이뤄졌다.

한편 B2C 홍보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유명 펫 채널과 연계한 'K-펫푸드 품평단'을 운영, 한국 수출업체들의 제품을 미리 받아보고 리뷰하는 영상으로 아세안 전역의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회 아세안 K-펫푸드 페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아세안 바이어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aT 제공>

으로 온라인 홍보를 추진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현지

소비자와 반려동물들이 한국의 프리미엄 펫푸드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품목

을 수시 발굴하고 우리 식품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서울대 석좌교수 초청 세미나

6월 1일...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6월 1일 오후 4시 황윤재 서울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제1회 'KREI 세계석학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의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과 정책적 함의"로 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z5nZ9_hL2Hc)에서 실시간 생중계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KREI세계석학 세미나'는 국내외 석학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농업·농촌·식품 경제 및 정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학술정보의 교류를 통한 국내 농식품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획됐다. 강사로 나서는 황윤재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계량경제학자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에는 세계계량경제학회 종신 석학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또 올해 2월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연구원이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 및 관련 연구분야의 글로벌 명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는 최신의 학술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학연금 윤리의 날 캠페인 6월 2일까지...전 직원 참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의 날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일 밝혔다.>

윤리의 날 캠페인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기간 사학연금은 ▲기관장의 윤리서한문 ▲의명상담 윤리톡 모의훈련 ▲전 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 및 다짐 ▲윤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임직원 대상으로 게릴라 윤리퀴즈 행사를 갖고, 윤리경영 추진 의지를 담은 기관장의 윤리서한문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내달 2일 기업윤리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의 윤리 확립 및 강화를 위한 윤리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다양한 윤리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